

데스크 시국



박진현 문화·예향국장, 선임기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화가 나혜석(1896-1948)을 기념하는 '나혜석거리'가 있다. 수원이 고향인 나혜석을 추모하기 위해 그가 세상을 떠난 지 52년이 흐른 지난 2000년 조성한 곳이다. 한복을 입은 채 앉아 있는 형상과 양장 차림으로 화구세트를 들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이질적인 모습의 두 동상이 300m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예술가로서의 나혜석을 깊게 들여다 보고 싶을 땐 수원시립미술관이 가면 된다. 수원의 관광1번지인 화성행궁 주변에 자리한 미술관의 '나혜석 기념관'에는 그가 남긴 20여 점의 작품 가운데 '자화상'(1928년 추정)과 '염노장'(1930년대) 등 5점이 전시돼 있다. 지난 2016년 미술관이 나혜석 탄생 12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전에 유가족이 '자화상'과 '김우영 초상'을 기증하면서 '나혜석 컬렉션'을 소장하게 됐다.

도시 브랜드가 된 예술가

올해 대전광역시에는 어느 해 보다 '핫한' 여름을 보냈다. 지난 8월 '한여름 밤의 시간여행'을 모토로 개막한 '2023 대전 0시 축제' 덕분이다. 대전의 원도심과 문화공간을 무대로 다양한 이벤트들이 펼쳐진 축제는 전국에서 110만여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성과를 거뒀다. 그중에서도 대전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은 예술도시의 매력을 발산하는 진원지였다. 특히 국내 최초로 뮤지오그래피(Museography-미술관 외관과 작품

은펜칼럼



이병우 우아포인트연구소 대표 광고홍보학 박사

챗(Chat)GPT 열풍이 거세다. 등장하면서부터 역대급 반향을 일으켜온 챗GPT는 여러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새롭게 출판된 챗GPT와 인공지능 관련 도서만 해도 100여 권이다. 크게 보면 두 분야인데 하나는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챗GPT가 가져올 사회적 윤리적 영향에 관한 것이다.

과거의 디지털 트렌드, 예를 들면 메타버스나 NFT와 비교할 때, 챗GPT는 그 사용성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챗GPT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도처에서 챗GPT와 AI(인공지능)에 관한 세미나와 포럼,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정부 당국에서도 공무원을 위한 챗GPT 활용 가이드, 소상공인을 위한 챗GPT 활용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에서는 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기고



김신영 광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

'청소년은 한나라의 미래 주역이다'라는 말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난만 뜨면 청소년의 위기와 문제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9일 청소년 활동예산 38억1000여 만 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6000여 만 원 등의 전액 삭감과 청소년보호 노동예산은 대폭 삭감을 골자로 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의 참담한 현실이다. 학교 교육만으로 채울 수 없었던 다양한 청소년 정책의 포기를 의미한다.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예산을 늘리겠다 설명하지만 주무 부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림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날이 늘어만 가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체계적으로 힘을 합쳐 정책을 만들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어떻게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통탄할 일이다. 최근 공교육이 무너지고 학교

나혜석, 이응노, 그리고 오지호

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를 도입한 이응노 미술관은 건물 자체가 대전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이다. 0시 축제에 맞춰 기획한 '2023 미디어 파사드: 이응노, 하얀 밤 그리고 빛'은 미술관 외벽에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역동적인 작품을 투영해 환상적인 불거리를 선사했다.

이응노미술관이 대전의 브랜드가 된 데에는 '고암 이응노'를 활용한 대전시의 공이 크다. 충남 홍성 출신인 고암(1904-1989)은 한지와 먹을 소재로 한 한국적 화법에 서양적 어법을 접목시켜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추구한 세계적인 작가다. 이같은 고암의 예술성을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키우기 위해 홍성 출신이지만 탄생 100주년인 지난 2004년 54억원의 예산을 들여 미술관을 건립한 것이다.

대전 이응노미술관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자 이에 자극받은 홍성군도 2011년 11월 2만㎡(6700평) 부지에 70억을 들여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을 건립했다. 흔적만 남아 있는 고향 생가터 옆에 유명건축가 조성홍씨의 설계로 건립된 이응노 기념관은 주변의 자연 풍광을 끌어 들여 관람객들이 잠시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심터로 인기가 높다. 여기에 유족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270여 점 등 고암의 작품과 유물 등 750여 점의 컬렉션을 보유해 대전 이응노 미술관과 '원원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처럼 유명한 예술가들은 한 도시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한 광주-전남의 인물 브랜드는 유독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한국서양화단의 선구자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에 대한 예우는 안타깝기만 하다. 광주에서 오 화백의 예술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곳은 번듯한 미술관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0년간 기거했던 자산동의 초가(광주시 기념물 제6호)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화순에도 생가터인 동복에 건립된 '오지호 기념관'이 있지만 소요 1점 이외에는 모두 복제품이다. 이렇다

보니 하루 평균 1명이 방문(지난해 기준)하는 웃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거장의 예술세계를 접할 수 있는 진품이 없는 기념관에 방문객이 찾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는 오 화백이 세상을 떠난지 40주년 이 된 뜻깊은 해였지만 변변한 추모행사조차 열리지 않았다.

'도립 오지호미술관' 어떤가

그런 점에서 오지호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를 담은 '미술관 건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화두가 됐다. 박수근, 김환기, 이중섭, 백영수 등 한국 화단에 큰 획을 그은 대가들의 출생지들이 위상에 걸맞은 기념관이나 미술관을 건립해 도시의 문화자산으로 키워가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한다.

그래서 말인데, 오지호 기념관을 전남도와 화순군이 머리를 맞대고 '도립 오지호 미술관'으로 건립하는 건 어떨까. 현재 광주 자산동에 있는 초가는 지방문화재로 등록돼 '계약'이 있는 데다 화순 동복 생가 옆의 기념관은 접근성에서 떨어져 미술관 부지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광주와 전남도, 화순이 공동으로 최적의 장소를 찾아 '오지호 미술관'을 짓는다면 자산동 초가-화순 생가로 이어지는 일명 '오지호 투어'는 물론 광주비엔날레, 화순의 관광명소, 광양의 도립미술관 등과 엮어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미술관에 채워 넣을 컬렉션은 유가족이나 뜻있는 컬렉터들의 기증을 유도하는 등 지혜를 모으면 된다. 뜻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은가.

가을의 초입인 9월, 광주-전남은 디자인비엔날레,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등 그 어느 때보다 초대형 미술 축제의 열기로 뜨겁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상을 떠난지 40년이 흐른 지금도 '지상의 방한칸'을 구하지 못해 떠돌고 있는 거장이 있다. 예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에 숨겨진, 우리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챗GPT와 AI 리터러시의 시대

있을까?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멘토링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필자가 느낀 소감을 중심으로 말하고자 한다. 먼저, 매우 강력한 AI 비서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다. 그전에는 며칠 걸릴 법한 작업을 이 도구를 사용하면 몇 시간 만에 똑똑 해결할 수 있는지가 말이다. 영화처럼 고도의 추론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수준도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챗GPT의 효용성에 대해 알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활용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입하기 위한 인증 과정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결국 경우엔 1:1로 가입 방법을 설명하고 활용 사례를 보여주면 대부분이 놀라움과 감탄의 반응을 보인다.

둘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새로운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챗GPT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질문(프롬프트)을 해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프롬프트 입력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게 하며, 이는 사용자의 기대치를 낮출 수 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몇 번 시도해보고 불확실한 답변을 받으면 사용을 멈추는 경우이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무척 빠르기 때문에 정교화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챗GPT를 비롯한 AI의 발전 속도는 눈이 어지러울 정도이다. 1-2주 만에 새로운 도구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 쫓아가기가 쉽지

않다. 필자도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인공지능에 관련된 컨퍼런스나 포럼에 참여하고 유튜브도 스타터 그룹에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셋째, 챗GPT의 문제점을 알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챗GPT는 정확할 사실을 감별하거나 판단력이 요구되는 과제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전문 지식 부분에서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 챗GPT는 어디까지나 '언어 프로그램'이다. 스스로의 의사결정과 자기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챗GPT는 아이디어 도출, 기획서 초안 작성, 전략 수립 수정 및 피드백 등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시각에서 답변을 검증하고,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챗GPT는 초안을 작성해줄 뿐이다. 자신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최적인을 완성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AI 리터러시(Literacy-문해력)의 시대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중점을 둔 교육과 업무 환경이 주를 이뤘지만, 챗GPT와 같은 AI 도구의 등장으로 인해 AI 리터러시의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이제는 챗GPT를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AI 리터러시의 시대에 선도적으로 적응하길 바란다.

청소년예산 전액 삭감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교실 안에서조차 통솔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게 실효성 있고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고민과 접근은 보이지 않는다.

여성가족부가 삭감하겠다는 동아리활동 사업이나 어울림 마당 등의 예산은 청소년들이 도서나 산간벽지, 농어촌 등 전국각지를 망라하여 저마다 다양한 재능을 찾고자 노력하며 꿈을 꾸었던 아주 소박한 예산이다. 동아리는 청소년들이 공동체로 모여 자기계발, 문화체육활동 등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핵심활동이고, 어울림 마당은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청소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유일한 청소년 축제이다. 이런 예산들을 삭감한다는 것은 30년 이상 공들이고 성장해온 청소년정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심각한 일이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발달로 인한 심리적 혼란과 정신적 불안감을 극복하도록 자아정체감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활동, 보호, 복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모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포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청소년 인구수가 감소된다 해도 성장을 위한 지원이 더욱 요구되는 이 시대에 이러한 정책을 편다면 누가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겠는가?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성문화센터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아동-청소년 대상 120회 이상의 성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적은 예산으로 아동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자기 몸체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는 일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필요한 곳이라면 무리한 교육 일정을 소화해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참담함과 해마다 성인권 교육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아동-청소년과 지도교사에 대한 미안함마저 든다.

청소년기에 제대로된 교육없이 정립된 왜곡된 성인식과 타인에 대한 함부로된 성적 행동으로 인한 문제를 회복시키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미리 예방하는데 지워되는 비용의 몇 배를 들여도 원상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만은 눈앞의 기대효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단계적으로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 관련 예산삭감을 당장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미래는 청소년 그들 안에 있다. 청소년들이 행복할 때 우리도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광주 AI선도도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계기로

'광주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이하 광주 AI센터)가 광주시 북구 오룡동 첨단3지구 내에 오는 10월 정식 개소한다. 센터가 구비한 장비는 세계적 수준의 컴퓨팅 연산 능력과 저장용량을 자랑한다. 컴퓨팅 연산능력 '88.5 페타플롭스'는 1초에 8경8500조번의 부동(浮動)소수점 연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다.

더욱이 광주 AI센터는 세계 최고 AI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초고성능 AI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인 'H100'을 1000여 대나 내장하고 있다. 이는 'H100'을 활용해 기업 등에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 사례이다.

앞으로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인 가상현실과 현실의 자산을 연결하는 메타버스와 사이버 보안, 고용량 고속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

다. 앞서 사전 시험가동 과정에서 AI모델 개편 703건과 상용화 77건, 논문 112건 등 성과를 냈다.

광주 AI센터 정식 개소를 앞두고 업계의 반응도 뜨겁다. 이미 전국에서 300여 개의 인공지능 기업이 광주에 동지를 틀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도 광주시·인공지능 산업 융합사업단 등과 AI산업 관련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AI 디지털 데이터기반의 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그렇지만 AI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현실은 녹초지 않다. 그렇지만 광주 AI센터 개소를 계기로 AI 인건비에 나서고, AI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AI 선도도시 광주'에 걸맞은 새로운 가상현실과 현실의 자산을 연결하는 메타버스와 사이버 보안, 고용량 고속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졸속 처리 안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일방 추진해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는 26일 한빛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평가서) 초안을 영광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한빛원전 1·2호기가 각각 2024년, 2025년 설계 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진행되는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다. 한수원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한빛원전반경 최대 30km)에 있는 지자체(영광·함평·고창·부안·무안·장성 등)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 공람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는 한수원이 추석명절을 앞둔 26일을 평가서 전달 날짜로 잡고 10월 5일을 주민공람 개시일로 결정했다는 데 있다.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를 제외하면 사실상 검토 가능한 날짜는 불과 5일이다. 검토 대상 평가서도 총 300쪽 넘는 분량에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자치단체로서 완벽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명목상 초안에 문제가 있으면 지자체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평가서의 용어 자체가 난해하고 고리원전 등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노후한 원전의 사용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중대한 문제를 5일만에 결정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입을 모은다.

한수원 측은 "추석 연휴를 감안해 자치단체에 8월 25일 평가서 가안을 보냈다"는 입장이지만, 한빛원전 1·2호기는 안전에 의문이 제기되는 논란의 발전소다. 한빛 1호기에서는 현재까지 45건, 2호기에서는 57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발전소의 수명연장 절차를 졸속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광주 의료진들과 시민들이 9년째 캄보디아 캄프스푸주(卍)의 광주진료소를 찾아 민간외교를 펼치고 있다. 인술(仁術)은 물론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에게 'K-컬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가 아닌 민간인이 예술,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 도모를 위하여 하는 외교를 민간외교라고 한다. 광주진료소는 캄보디아에서 그동안 민간외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광주시와 민간단체인 (사)아시아희망나루, 광주일보사가 나서 지난 2014년 설립한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올해로 개원 9년째를 맞았다.

민간외교

9년이라는 세월은 현지에서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척박한 의료 환경 속에서 경제-물리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보편적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이는 자신들의 값진 일생 일신을 뒤로 하고, 서슴없이 먼 거리를 달려와 의료봉사를 해 준 많은 광주 의료진들의 노력 덕분이다. 또한 의료진들과 함께 진료소를 찾은 봉사단원들도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해내고 있다. 봉사단원이 전 세계

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공연을 비롯해 떡볶이, 김밥, 라면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들 주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K-컬처가 현지 주민들에게 일상의 한 장면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어렸을 적부터 광주진료소에서 치료를 받고, 한국 문화를 접해온 현지 10대 청소년들은 이제 한국어까지 곧잘 하며 한국 문화에 푹 빠져있다. 광주진료소를 통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늘어나면서 현지 청소년들은 광주 봉사단이 방문할 때마다, 앞다퉈 필자를 끌어 부치고 자원봉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원 이래 9년 동안 현지 봉사활동이 진행된 것은 지금까지 모두 45차례이다. 9년 간 많은 광주 의료진들과 시민들의 손길, 노력, 땀방울이 캄프스푸주 마을 곳곳에 배어있을 것이다.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광주시민들의 민간외교 현장으로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